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대화가 끝이 나고 또한 엘리후의 발언도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때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38장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성경에서 가장 길게 말씀하시는 본문일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오묘하신 능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모든 것과 천지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순히 자연의 아름다움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의 이치와 법칙들까지도 총망라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던 태초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아! 그거는 너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야'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것입니다. 네가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아니 세상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때 계셨고, 그 때 땅의 기초를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늘과 온 우주의 별들을 포함한 천체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위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한가지 눈 여겨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38:2의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38:2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생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전 성경에서는 '이치'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 또는 이치라고 번역한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차'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같은 단어가 42:3에서도 사용되었는데 여기서는 두 성경 모두 '이치'라는 말로 번역하였습니다. 다른 쉬운 번역들에서는 이 단어를 대부분 '뜻'이나 '지혜'로 번역하였습니다.

지금 이 단어를 생각이라고 번역을 하든 아니면 이치라고 번역을 하든지 간에 제가 말씀 드리려는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이치는 우리들의 생각과 이치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이치를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깨달은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가장 흔한 착각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는 착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했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기도를 조금 많이 한다 싶으면 우리들의 말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거침없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말씀을 지금 욥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욥일지라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다 알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욥은 40:4-5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듣고 난 후에는 42:3에서는 자신을 가리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라고 반문하면서 욥 자신이 바로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귀로 들어서만 알고 있었던 자신이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직접 뵙고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나고 체험한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알아 들을 수 있는 말과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 주셨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말과 글로만 알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는 사람은 오늘 욥과 같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것과 같이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네사렛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시몬 베드로도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오는 겸손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회개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